

논 문13

무엇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가? 학교교육의 문제? : “명문대 중심 대학입학관” 과 한국의 사교육

이 수 정*

요약

본 연구는 사교육 수요의 원인으로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학교교육의 질적 측면과 학생성적과 같은 요인이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전국단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은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사교육 참여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들에 보다 착안하여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의 원인을 조명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교육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대학입학관, 곧 "명문대 중심의 대학입학관"의 개념을 새로이 규명하고, 이러한 "명문대 중심 대입관"이 사교육 참여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대로 사교육 참여의 원인이 공교육의 질이나 학생성적과 같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사회심리적 요인인 "명문대 중심 대입관"에 보다 더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일각에서 사교육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되어 온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해석과 같이, 사교육 참여행위가 지위경쟁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교육 제도의 발달과 함께 이미 제도화되어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다.

주제어: 명문대 중심 대입관(명성위주의 대학입학관), 지위경쟁적 관점, 신제도주의적 관점, 사회심리적 요인, 학교교육의 질, 학생성적, 사교육비, 위계적선형모형.

I. 서론

1. 사교육의 개념 및 현황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오늘날 초중등교육 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왔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매년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가 되어왔음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왔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육은 사교육 과열 현상으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사교육 과열 현상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논란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교육이나 사교육비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사교육 활동은 흔히 말하는 “과외수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과 중첩되는 교습형태, 곧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의 개인이나 사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학교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수업에 개인부담 비용을 지출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도 국가차원에서 정기적인 사교육비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보도하면서 사교육비 개념에 대해 위와 동일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곧 사교육비의 의미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밖 보충교육비)”으로 표준화하여 조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²⁾

이와 같은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외의 몇몇 연구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찍이 “shadow education”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비교교육 연구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새도우 교육(shadow education)”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교육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몇몇 학자들에 의해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학교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수업”으로 정의되어 왔다(Stevenson and Baker, 1992, p.1639). 이는 공교육기관이 아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교육의 그림자처럼 공교육 활동과 동일한 형태를 띠면서 공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교육 혹은 과외교육을 새도우 교육(shadow education)으로 비유한 이유에 대해 Bray(2003)는 세 가지 특성, 곧 1) 보충적 과외교육은 주 공교육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점, 2) 과외교육은 주 공교육체제의 형태와 크기가 변함에 따라 함께 그 형태와 크기가 변한다는 점, 3) 거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사교육보다 주 공교육체제에 훨씬 더 큰 대중의 관심과 비중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Bray, 1999, 2003; LeTendre, 1994; Stevenson and Baker, 1992; Tsukada,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의미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개인부담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수업을 받는 것으로서, 과외지도나 학원 수강, 학습지 및 인터넷 과외교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1) 최근 “사교육”이라는 용어는 “과외”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과외교육을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 보도자료(2007, 6월). 사교육비실태조사 실시 계획.

규정하고,³⁾ 사교육비를 이러한 활동을 위해 개인이 지불하는 교육비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I. 사교육 원인에 대한 논의의 비판적 검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사교육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사교육 실태 조사 및 대책 연구, 사교육 원인 연구, 사교육 효과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사교육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에 치우쳐 있었고 사교육의 원인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그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제안이나 대책관련 논의는 많았으나,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이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그나마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최근 들어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몇 편의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의 발달이나 수요의 원인에 관한 실증 연구는 사교육 실태 조사연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의 이유나 원인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 사교육 수요의 원인에 관한 선행 연구의 한계

사교육참여 원인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기능적 관점 혹은 지위경쟁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 곧, 선행 연구에서는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로 낮은 질의 공교육 문제, 학생의 성적 보충 및 향상의 의도, 부족한 대학입학기회나 치열한 대학입학경쟁, 평준화정책과 대학입시개혁정책 등과 같은 현재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응 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을 제외하고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사교육 실태 조사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원인은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조사를 근거로 한 인식 조사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과 관계 분석에 의한 연구 결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사교육 문제의 대책을 논하며 제시되었던 여러 원인들은 과거와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사교육 행태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점이 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⁴⁾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요 사교육

3) 특기·적성 관련 교습활동은 제외된 학교수업 보충 목적의 과외수업을 의미한다.

4) Lee, S. (2006). Prestige-Oriented Views of College Entrance and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Factors Influencing Parent Expenditures on Private Tutoring.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수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학교의 질” 과 “학생성적” 요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고, 동시에 기존의 설명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사회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 수요의 유발 요인에 대해 조명하였다. 특히 그동안 치열한 대학입학경쟁 등 한국 중등교육의 주요한 특징들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왔던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인 이른바 “교육열”이 사교육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사교육 과열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SES변인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학교의 질” 이나 “성적” 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데 비해 “명문대 중심의 대입관” 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로 담임교사가 인지하는 그 학교의 수업분위기와 교사의 수업능력, 학교의 학생성적 수준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각 독립변인들의 “사교육비 지출” 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함에 있어 학교 수준별 특성에 따른 영향력을 보다 더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연구자료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가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 측정되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계적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다층모형분석이 보다 더 적합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 변인과 학교 특성 변인이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더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사용한 변인을 다시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의 2-수준 변인으로 나누어 위계적선형모형(HLM)을 이용하여 재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하에서는 사교육 수요의 원인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세 가지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기로 한다.

가. 낮은 공교육의 질이 문제인가?

최근 몇 년간 정치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공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이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고 이것이 결국 사교육의 발달을 부추기게 되었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 (김광옥·김대일·서이중·이창용, 2003; 김태종 외, 2003; 이주호·홍성창, 2001; 한겨레, 2005, 2월).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학교교육의 질 하락을 주장하는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최근의 거듭된 경험적 연구 결과(김기석, 2004; 김기석외, 2004, 2005; 김현진, 2004a; 성기선, 2004, 2005; 채창균, 2006)에 의해 그 논리의 오류가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사교육의 수요와 공교육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⁵⁾ 이와 관련하여 단지 부모의 학교교육 불만족 변인과

사교육비 지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소수의 연구(김현진, 2004; 전성일·강인원·김은영, 2003)가 있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비 지출 간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학교교육의 질이 사교육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고 시도했던 Lee(2003)의 논문은 학교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공립학교에 대한 총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립학교 총예산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는 타당성을 얻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낮은 학교교육의 질이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교육 의존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

나. 낮은 성적을 보충하기 위해서인가?

한편, 지위경쟁적 관점에 기초하여 사교육 원인을 조명해 본다면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생들의 성적보충 수요에 대한 함수일 것이다” 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 논리의 귀결이 될 수 있다. (Baker & LeTendre, 2005; 김경근, 1999; 상경아, 2005; 이종재·김현진, 2005). 그러나, 사실상 이에 대한 검증 역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소수의 연구이기는 하나 성적이 높은 학생이 성적이 낮은 학생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Won, 2001; 채창균, 2006; 최상근 외, 2003). 이 연구결과로 학생성적 요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상근 외 연구에서는 학생성적에 대한 간접측정의 한계가 있고, Won(2001) 연구는 표본 크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의 영향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요소들, 특히 부모의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표적 지표로 주로 가계의 소득을 사용하여 사교육비 지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가정에서 소득이 적은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소득과 같은 SES 요인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기 보다는 이 요인이 통제변인으로 혹은 다른 중요한 요인과 관련되어 사교육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 5) 채창균(2006)은 평준화와 사교육비 지출간에 유의미한 관련을 추정한 이주호·홍성창(2001)의 연구결과가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동일한 자료를 추정방법을 달리하여 분석한 이주호·김선웅(2002)연구에서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앞선 이주호·홍성창(2001)의 연구도 강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이 학교교육의 질을 저하시켜서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는 논리는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

라. 대학입학경쟁 관련 논의의 한계

그 동안 사교육 수요의 증가 원인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요한 요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치열한 대학입학경쟁 현상이었다(윤정일, 2002; 이종재, 2005; 현주·이재분·이혜영, 2003. 최상근 외, 2003; 김동석, 1998).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대학입학기회가 불충분한 현실이 과도한 대입경쟁을 초래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82.1%에 이르기까지 한 현재의 높은 대학진학률을 두고 볼 때, 극심한 대입경쟁 현상의 원인을 불충분한 양적 대학입학기회로 돌리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교육부, 2005). 한편 대학입시정책의 문제가 사교육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어왔으나, 이것은 그 동안의 수많은 대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대학선발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한 김현진(2004)의 연구에서도 사교육비에 대한 대학선발제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III. 사교육 수요의 원인에 관한 연구모형

1. 대학입학경쟁과 사교육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문제가 전통적으로 치열한 "대학입학경쟁" 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해 왔듯이 우리나라 중등교육기관이 입시준비기관, 특히 대학진학준비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⁶⁾을 말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이와 같은 학부모의 교육열은 각급 학교단계에서의 입학경쟁을 거쳐 결국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의식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Kim, K. S., 1991; Joo, 2000; Seth, 2002; Weidman & Park, 2000; 고희일·이두휴, 2002; 김동석, 1998; 김영철 외, 2001; 김영화, 1999; 김영화·이인효·박현정, 1993; 김현진, 2004a; 오욱환, 2000; 윤정일, 1997; 이정규, 2003; 이종각·김의수, 2003; 이종재, 2005; 최상근 외, 2003; 현주·이재분·이혜영, 2003). 이처럼 치열한 대학입학경쟁의 사회에서 자녀에게 더 나은 교

6) 교육열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열망" 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종재, 2005; 현주·이재분·이혜영, 2003).

육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언제부터인가 대학입학경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교육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공식으로 자리 잡아 왔던 것이다.

사교육 의존 현상이 극심한 대학입학경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거의 반세기에 이르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주로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정책으로 꼽히는 중학교무시험입학제도나 고교평준화정책 등은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상위학교 입학 위한 과열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정책이었고 그러한 정책목표 대로 입시경쟁과 과열과외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단계로 입시경쟁과 과열과외 현상이 이전되어 대학입학경쟁과 그 경쟁을 위한 과열 사교육 의존현상으로 귀결되는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대입경쟁: "명문대" 입학을 향한 열망

그런데, 이러한 더 나은 교육기회를 향한 경쟁이라든가 교육열과 같은 것은 사실상 순수한 교육의 기회라기보다, 명문 학교 입학에 대한 열망이었고 결국은 명문대학 입학에 대한 경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형일, 1998; 오욱환, 2000; 이정규, 2003).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양적인 대학입학기회는 거의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대입경쟁은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몇몇 의식조사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높은 비율의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수의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삶의 성공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최상근 외, 2003; 현주·이재분·이혜영, 2003). 한마디로, 이러한 “명문대 입학에 대한 열망”은 한국인의 교육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간에 나타났던 치열한 입시경쟁이 곧 명문중학교와 명문고등학교 입학에 거쳐 명문대 입학에 대한 경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실 과외열풍은 1960년대와 70년대 소수의 명문 중학교 입학 경쟁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 당시 모든 중학교는 경쟁적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학시험의 합격선에 따라 중학교간에 서열이 생겨나게 되었고, 소수의 높은 서열의 중학교들이 명문중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 입시준비 위주로 치우쳐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초등학교들 간에 명문중학교 입학에 대한 과열된 입시경쟁은 과열과외 열풍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969년 당시 정부가 중학교입학 시험을 금지하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입시경쟁과 과열과외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무시험제의 효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입시경쟁과 과열과외가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쟁과 과외열풍은 사실상 그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로 단순히 이전되어 나타난 꼴이 되었다. 곧 1969년부터 변경된 중학교무시험제에 따라 증가하기 시작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던 197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시가 또 다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중학교무시험입학제도 이전의 중학교 입시경쟁과 동일한 양태로 드러난 것이다. 각 고등학교가 학생선발을 위해 실시하는 입학시험의 합격선에 따라 명문 고등학교가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학생들 간에는 그러한 명문고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치열한 경쟁과 과외 열풍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경쟁은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소위 명문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이었던 것이다. 당시 중학교 졸업자의 70% 정도가 진학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치열한 경쟁은 주로 명문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국민들에게는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후 목표인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윤정일, 2002, p. 46). 이와 같이 다시 명문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중학생 단계의 입시경쟁과 과열과외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을 결정하여 학군별로 고교를 지원하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김운태 외 1979; 교육인적자원부, 2003).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듯이, 중학교 단계에서의 명문학교 입학경쟁이 고스란히 고등학교 단계로 옮겨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야 말로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사교육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 역시 명문학교 입시경쟁의 완화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 곧 치열한 입시경쟁완화를 위해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었던 중학교무시험제도와 고등학교평준화 정책은 한 마디로 명문학교 입학 목적의 극심한 경쟁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윤정일 외,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결론적으로, 이러한 명문학교 경쟁의 최종 지점은 “명문대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의 주요 원인은 명문대 입학을 위한 경쟁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교육 수요의 궁극적 원인은 공교육의 질이나 제도,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의 특성이 어떻든 간에, 성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명문대 입시경쟁을 위한 상대적인 경쟁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명문대 입시경쟁의식과 사교육 참여행위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학생과 학부모의 명문대중심의 대입관과 사교육 이용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3. 제도화된 행위로서의 사교육

한편, 명문대 중심의 대학입시 경쟁만으로 오늘날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사교육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사교육 수요의 원인을 조사한 최근 연구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주변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곧, 윤정일(1997)의 사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 40% 정도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50% 이상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 이용의 이유로 “불안감”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이미나(199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동료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실제 이용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정일, 1997; 이미나, 1991). 이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소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일상화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오늘날 사교육 현상의 원인에 대해 “지위경쟁적”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지위경쟁적” 관점에서 오늘날 사교육 현상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제도주의 이론가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교육 현상에 접근하고 있는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은 단지 보다 더 나은 지위획득을 위한 개인 간 경쟁으로 인한 결과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교육 참여행위가 전 학교생활에 걸쳐 “당연시” 되는 사회적 풍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Baker et al., 2001; Baker & LeTendre, 2005; Baker, Motako, Letendre & Wiseman, 2001; Bray, 1999; Meyer, 1977; Stevenson & Baker, 1992). Baker와 LeTendre와 같은 학자는 TIMSS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사교육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가 이미 “제도화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곧 사교육 현상이 학교교육의 발달과 함께 점점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는 학생의 특성이나 배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Baker & LeTendre, 2005). 이들의 지적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느덧 사교육 참여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풍토가 만연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회풍토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동료친구들 대부분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결국 사교육에 참여하도록 재촉하는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단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위한 개인 간 경쟁의 산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미 제도화되어 버린 사교육 현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회심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 역시 본 연구가 한국사회의 구조 및 문화적 특성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사교육 발달의 원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 또 하나의 논리이기도 하다.

4. 이론적 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공교육의 낮은 질” 문제와 “성적보충”의 동기 측면에서 사교육 수요의 원인을 설명해 왔던 관점과 달리, 사교육 참여에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소들에 보다 착안하여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의 원인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동안 치열한 대학입학경쟁 등 한국 중등교육의 주요한 특징들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왔던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인 이른바 “교육열”이 사교육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교육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대학입학관, 곧 “명문대 중심의 대학입학관”을 규명하고, 이러한 “명문대 중심의 대학입학관”이 사교육 참여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시에, 최근 일각에서 사교육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되어 온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사교육 참여행위가 지위경쟁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교육 제도의 발달과 함께 “이미 제도화되어 당연한 행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Baker et al. 2001; Baker & LeTendre, 2005; Bray, 1999; Meyer, 1977; Stevenson & Baker, 1992).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주로 언급되어 왔던 “학교의 질”이나 “학생성적”과 같은 요소들은 실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정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대신에, 사교육 수요의 주요 요인으로서 학생들의 “명문대 중심 대입관”의 개념을 정립·측정하여 이것과 사교육 참여간의 영향 관계가 클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V. 연구방법

1. 자료

연구자료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변인을 도출하였다. KEEP의 모집단은 2004년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나, 본 연구의 모집단은 중학교 학생을 제외하고 2004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2. 분석방법

연구의 이론적 분석 틀에 따라 분석을 위한 독립변인으로서, 학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네 변인(군), 곧 학생의 “내신성적”, “명성위주의 대학입학관”, “학교교육의 질”, “SES” 변인과, 종속변인으로서 학생에 대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변인을 도출하였다. 이들 변인은 학생수준 변인(군)인 “내신성적”, “명문대 중심 대학입학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SES)”변인과 학교수준 변인(군)인 “지역규모”변인과 “학교교육의 질”변인으로 나누어, 이들 학생수준 변인과 학교수준 변인이 어떻게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다층모형분석 방법의 하나인 위계적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는 각 층에 속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50명의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위계적 자료에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 위계적 선형모형이다(강상진, 1995; 양정호·김경근, 2003; Raudenbush & Bryk, 2002). 특히 지역규모나 학교의 질과 같은 학교 수준의 변인을 학생 수준에서 분석할 경우, 잘못된 자유도를 허용함으로써 회귀 계수의 통계성 유의성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만 결측치로 인해 일부 학교의 샘플의 경우 분석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나. 측정변인

독립변인

<학생수준 변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의 월평균소득과 부모의 학력수준을 측정 한 변인이 사용되었다.

- 월평균 소득

월평균소득은 학생의 부모에게 10,000원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 부모 학력

본 연구에서는 KEEP자료에서 학생의 남성보호자와 여성보호자가 부모(양부와 양모인 경우도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학력에 응답한 사례만을 따로 떼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자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9점 척도(미취학=1, 무학=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2~3년제 대학=6, 4년제 대학=7, 대학원석사=8, 대학원박사=9)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교육연한(미취학=0, 무학=0, 초등학교=6, 중학교=9, 고등학교=12, 2~3년제 대학=14.5, 4년제 대학=16, 대학원석사=18, 대학원박사=21)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학생 성취수준

학생들의 성취수준은 학생의 담임교사가 기입한 내신 성적 석차(전교 및 계열) 점수(백분위 점수)로 측정하였다. 내신 성적 석차 중 전교, 계열, 학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만 포함시키고 학급 기준으로 조사된 석차는 제외시켰다.

명문대 중심 대입관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소수의 명문대 입학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명문대 중심 대입관”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두 개의 하위 변인, 곧 1) 희망하는 대학의 명성도와 2) 명성위주 대학선택을 통해 학생들의 명문대 위주 대입관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하였다.

- 희망대학의 명성도

“희망대학의 명성도” 변인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명성순위를 통해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의 명성 순위를 매기기 위해 중앙일보의 “2005전국대학평가”의 종합순위를 사용하였다.⁷⁾ 중앙일보가 1994년 이래로 매년 실시해온 “대학종합평가”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기 위해 4가지 평가기준인 1) 교육여건·재정(학생당 교수 및 교육비 비율, 도서자료 구입비 등), 2) 교수 연구실적, 3) 사회적 평판도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도, 4) 개혁 및 개선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2005전국대학평가”에서는 “사회적 평판”도 부분의 비중을 보다 강화하여 종합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평판도는 기업 인사 담당자, 일선 고교의 교장·교감, 문화 예술계 인사 등과 같은 폭넓은 설문 대상자에게 학교 발전 가능성이나 학교 호감도와 같은 일반적인 평판의 내용을 질문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평판도를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한 “2005전국대학평가”가 대학의 일반적인 명성순위를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대학평가순위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2005전국대학평가”의 종합대학순위는 1위부터 29위까지 보고되었다. 그래서 학생이 응답한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을 가지고 “희망 대학의 명성도”라는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는 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순위 안에 속하는 경우 1위부터 29위까지의 순위를 29부터 1로 역코딩했으며, 그 외의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0”으로 코딩해 사용하였다.

- 명성위주 대학선택

“명성위주 대학선택” 변인은 “희망대학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의 명성”이라고 응답한 자료는 “1”로, 그 외 응답 자료는 “0”으로 더미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7) 중앙일보(2005, 10월 4일). 전국대학평가.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693778.

<학교 수준 변인>

학교 배경(지역규모)

학교의 배경 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역 규모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DB에서 사용한 것처럼, 학교 소재 지역을 행정 구역에 따라 다섯 개의 위계(특별시/광역시, 시군구(동)지역, 읍지역, 면지역, 특수지역) 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런 분류 방식은 행정 구역의 구분이 해당 지역의 인구의 수에 기초해 이루어지므로, 해당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사용한 도시화 정도를 고려한 지역 규모를 사용하였다. 다만, 읍지역과 면지역, 그리고 특수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합쳐 사용하고, 시군구(동)지역을 중소도시로 이름 지어 사용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읍면지역, 중소도시, 광역시, 특별시, 4개의 위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네 수준의 지역 규모 중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구분을 모두 더미 코딩하여, 읍면지역에 비교해 각 지역 규모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학교의 질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로는 조사 대상 학생들의 담임교사에게 물은 학교의 환경과 관련된 문항(1차년도 담임교사 설문지 5번) 중에서 학교의 학업 능력과 관련된 문항 세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선택된 문항은 “학교의 수업분위기(BYT04005)”, “교사들의 실력(BYT04011)”, “주변학교와 비교한 학생들의 성적(BYT04012)” 이다. 담임교사 각자가 응답한 응답 결과를 학교 수준에서 평균하여 학교 수준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세 문항은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학교의 질” 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alpha=.73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세 문항을 합성하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인

월평균 사교육비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종속변인은 학부모가 조사대상 학생을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였다. 여기서 “사교육” 의 정의는 정규학교교육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교육과정과 동일한 종류의 교육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과외” 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교육형태, 곧 학원수강,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통신과외, 학교 내 방과 후 과외, 해외연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수치는 자연로그(natural log)화하여 사용하였다.

다. 명문대 중심 대입관 변인의 구성

명문대 중심 대입관 변인을 구성하는 두 변인 중, “희망대학명성도” 변인은 연속변수이

지만 “명문위주대학선택” 변인은 이분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변인이 하나의 “명문대중심대입관”이라는 구성개념으로 묶여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타당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 다만 타당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희망대학명성도” 변인과 “명문위주대학선택” 변인이 하나의 개념 곧, “명문대중심대입관”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두 변인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타당도 검사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방법은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명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학생들 집단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 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명문대중심대입관” 개념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 이분변수로 코딩 변경된 “명문위주대학선택” 변인의 종속변인인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두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명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학생들 집단의 “희망대학명성도”에 대한 평균값(11.098)이 대학명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학생들 집단의 평균값(4.923)보다 높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대학의 명성을 선택한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는 학생집단 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처럼 “희망대학명성도” 변인과 “명문위주대학선택”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의 회귀식에서는 두 변인을 합성하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투입·분석하였다.

<표 1> “명문대중심대입관” 변인의 타당도 검사를 위한 두 독립표본 t 검정

“명성” 위주 대학선택 (이분 변수)		N	평균	t
희망대학 명성도	대학선택시 “대학명성”은 최우선 고려사항임	500	11.098	11.711***
	대학선택시 “대학명성”은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님	1,668	4.923	

*** p <.001

3. 기술통계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값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생수준>					
월평균 사교육비 ^a	2478	2.45	1.74	0.00	6.21
명문대 중심 대입관 희망대학명성도	2478	3.92	8.19	0.00	29.00
명성위주대학선택 (1=명성; 0=그외)	2478	0.13	0.34	0.00	1.00

학생성취수준(내신성적석차)	2478	47.50	26.91	0.20	100.00
학생배경					
부모소득 ^a	2478	295.56	189.71	0.00	2000.00
부의학력	2478	11.71	3.18	0.00	21.00
모의학력	2478	10.78	2.92	0.00	21.00
<학교수준>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77	0.21	0.41	0.00	1.00
광역시	177	0.20	0.40	0.00	1.00
중소도시	177	0.36	0.48	0.00	1.00
학교의 질					
수업분위기(BYT04005)	177	3.35	0.59	1.75	5.00
교사의 실력(BYT04011)	177	3.80	0.38	3.00	4.75
전체 학생 성취 수준(BYT04012)	177	2.97	0.85	1.00	5.00

(a) 단위:10,000 원 (로그화된 단위).

V. 분석 결과

<표 3>, <표 4>는 각 학생수준 변인과 학교수준 변인에 대해 회귀분석한 7가지 모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학생수준변인 및 학교수준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I)

	모형1 (기본모형)	모형2 (학생배경)	모형3 (학교성적)	모형4 (학교의질)
학생수준				
절편	2.414 ***	2.432 ***	2.431 ***	2.429 ***
사회경제적배경				
부학력		0.048 ***	0.048 ***	0.046 ***
모학력		0.083 ***	0.082 ***	0.081 ***
가구월소득		0.003 ***	0.003 ***	0.003 ***
학교 성적				
백분위 성적			-0.002	
명문대중심대입관				
명성위주대학선택				
희망대학명성도				
학교수준				
지역규모				
(읍면지역=0)				
특별시		0.764 ***	0.765 ***	0.677 ***
대도시		0.195	0.189	0.120
중소도시		0.342 **	0.340 **	0.246 *
학교의 질				
수업분위기				0.225
교사의 실력				-0.205
전체학생성취수준				0.159

변량				
학생수준	2.191	1.886	1.885	1.885
학교수준	0.832	0.306	0.308	0.266
전체	3.023	2.193	2.193	2.151
ICC	0.275	0.140	0.140	0.124

***p <.001, **p<.01, *p<.05

모형 1은 사교육 지출액의 분산을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본 모형이다. 급내 상관 계수(ICC)가 .275로 학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성취도 검사와 같은 성적 변인들 중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10% 내외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사교육비 변량에 있어서 학교 간 혹은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학생 배경과 관련된 변인을 통제한 결과이다. 학생 배경의 통제 변인으로는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 변인과 지역 규모 변인을 사용하였으며,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부모의 학력 수준과 가구 월 평균 소득(만원 단위)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배경 변인들은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과 정적인 관련성을 맺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변량의 약 63.2% $((0.832-0.306)/0.832)$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약 사교육의 효과가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존재한다면 사교육이라는 매개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세습·재생산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분석 결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지역 규모에 따라 특별시 지역과 중소도시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가정이 서울이나 서울 외곽의 일부 신도시 지역에 모여 살게 되면서,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성가구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사교육비 지출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분리 현상(disaggregation)이 일어나고 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모형 3과 모형 4는 그 동안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인들이 과연 그러한지 살펴본 것이다. 특히 그 차이가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 동안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학교교육의 낮은 질을 비판해 왔다. 이에 높은 질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성적이 높은 학생은 사교육에 덜 의존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제했을 때 학교에서의 성적이거나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졌다면, 성적이거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5와 모형 6, 그리고 모형 7은 본 연구에서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가정한 “명문대 중심 대입관”이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모형 5에서는 기본 모형에 “명문대 중심 대입관” 변수만 투입해 봄으로써 지출할 사교육비를 결정하는데 “명문대 중심 대입관”이 어떤 관련을 맺게 될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명문대 중심 대입관”을 구성하

는 두 변인 모두 사교육 비용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효과가 순수하게 “명문대 중심 대입관” 의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특히 높은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이 높은 “명문대 중심 대입관” 을 가지고 있고 사회 경제적 배경의 전달을 사교육을 통해 한다면, “명문대 중심 대입관” 은 단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모형 6에서 해결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제했을 때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 높은 “명문대 중심 대입관” 을 가지고 있으며, “명문대 중심 대입관” 이 사회 경제적 지위와 사교육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 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본 모형에서 “명문대 중심 대입관” 을 대표하는 두 변인인 “명성위주대학선택” 과 “희망대학명성도” 로 나누어 그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명성위주대학선택” 변인의 효과는 줄어들기는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희망대학명성도” 변인의 효과는 통계적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변하며 매우 미미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좋은 배경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높은 순위의 대학을 희망하며, 이를 실현키 위해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투여를 통해 이를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는 “희망 대학의 명성도” 변인이 가진 약점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희망 대학의 명성도” 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 도구로 사용된 중앙일보의 “전국대학종합평가” 순위는 우리 사회의 학생과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통념적인 대학서열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년 발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위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순위가 즉 보다 현실의 통념에 가까운 대학 서열 구조를 반영하는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면, 이 결과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4> 학생수준변인 및 학교수준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II)

	모형1 (기본모형)	모형5 (명성중심대입관)	모형6 (학생배경통제)	모형7 (통제변인투입)
학생수준				
절편	2.414 ***	2.421 ***	2.434 ***	2.431 ***
사회경제적배경				
부학력			0.048 ***	0.045 ***
모학력			0.079 ***	0.077 ***
가구월소득			0.002 ***	0.002 ***
학교 성적				
백분위 성적				-0.001
명문대중심대입관				
명성위주대학선택		0.406 ***	0.298 ***	0.284 **
희망대학명성도		0.016 ***	0.005	0.003
학교수준				
지역규모 (읍면지역=0)				
특별시			0.721 ***	0.649 ***
대도시			0.169	0.102
중소도시			0.324 *	0.237 *

학교의 질				
수업분위기				0.218
교사의 실력				-0.204
전체학생성취수준				0.144
변량				
학생수준	2.191	2.177	1.883	1.880
학교수준	0.832	0.687	0.280	0.253
전체	3.023	2.864	2.163	2.133
ICC	0.275	0.240	0.129	0.119

***p <.001, **p<.01, *p<.05

모형 7은 우리가 가정에서 지출할 사교육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적으로 상정했던 변인, 곧 학교 성적, 학교의 질, “명문대 중심 대입관”의 효과를 모두 보려고 만든 모형이다. 모형 3, 모형 4, 모형 6과 비교해 보면, 무엇보다 사회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더불어 “명문대 중심 대입관”, 그 중에서도 “대학의 명성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은 사교육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한 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의 질적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명문대 중심 대입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주었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가정배경적 요인, 특히 부모의 소득과 학력의 영향을 다시 한 번 더 지지해 주고 있다 (Stevenson & Baker, 1992; 고희일·이두휴, 2002; 김영철 외, 2001; 김현진, 2004; 윤정일, 1997; 이정환, 2002; 이주호·김선용, 2002; 최상근 외., 2003).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배경 요인의 영향은 기존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1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것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학생의 성취수준과 학교의 질 요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대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던 학교교육의 질적 측면이나 학생성적의 측면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1. "명문대 중심 대입관"의 결정적 영향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학생들(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부모 역시)의 “명문대중심대입관,” 곧 명문대 입학의 열망 정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상당히 영

향력 있는 예언자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 참여의 원인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공교육의 질적 측면이나 학생성적과 같은 문제에 있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독특한 사회심리적 요인, 구체적으로 “명성위주의 대학입학관” 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학생과 학부모의 “명문대중심대입관” 은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학력·학벌 사회의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학자들도 소위 명문 대학교의 졸업장을 미래의 성공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지적해 왔다(Joo, 2000; Lee, 2005; 고희일, 1998; 김영화, 1999; 김현진, 2004; 오욱환, 2000; 이정규, 2003; 현주·이재분·이혜영, 2003). 그 동안 여러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소수 명문대에 입학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투자할 각오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고, 이것이 이른바 우리 “교육열”의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제도로서의 사교육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의 사교육 발달의 원인과 관련하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사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토와 문화에 아주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행위가 일종의 사회적 규율과 같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육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마치 미국의 학생들이 학교축제나 동급생 파티에 초대되지 못할 때에 느끼게 되는 일종의 불안감이나 사회적 격리감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생들이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법한 두 가지 요인, 곧 학교성적이나 학교교육의 질적 요인에는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사교육 참여 행위는 학생성취의 수준이나 그들이 속한 학교의 차이에 큰 상관없이 고루 퍼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곧, 학교교육의 발달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온 사교육 참여 행위가 일종의 “제도화된 행위”로서 자리 잡게 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일면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의 사교육 발달의 원인으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학교교육의 질적 측면과 학생성적과 같은 요인이 실제로 사교육비 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전국단위 조사 자료를 가지고 실증 분석한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 참여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주목하고, 새로운 개념인 “명성위주의 대학입학관” 을 조작적으로 정의·측정함으로써 사교육비 지출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첫 시도로서 그 주요한 의의가 있다.

3. 정책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사교육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정치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사교육 수요의 증가는 낮은 학교교육의 질 때문이라는 논리 하에 고교평준화 정책의 존폐문제까지도 거론되곤 했었다. 학교의 질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사교육은 질 높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든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구별 없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현상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사회구조 및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소가 사교육 수요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사교육 참여행위가 일종의 사회문화적 경향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사교육 수요가 단기간의 어떤 대책으로 쉽게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곧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때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사교육 문제가 단기간의 정책대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풍조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곧 사교육 수요의 주요 요인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사회심리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사교육비 문제는 기존의 교육제도나 정책을 성급하게 개혁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들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별다른 실효도 거두지 못한 채 학교현장의 혼란과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LeTendre, 1994). 그 보다는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한 역사를 보면, 사교육 문제가 주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정책 관료나 후보자들의 태도는 성급한 해결책을 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러한 행태는 Boyd (1999)가 지적하는 “교육정책과 정책연구 간의 비연계성”에 관한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대로 사교육 열풍이 단기간 완화되지 않을 일종의 시대적 풍조라고 본다면, 당면한 사교육 정책 과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나 EBS 수능방송 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수요의 원인이 대학입시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초·중등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대학입시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홍준 외(2005, 10월). 2005 전국대학평가,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1693778.
- 고형일(1998). 사교육비 해소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한국교육비전 2020: 교육전략 교육정책 토론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형일·이두휴(200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 연구. 12(1). 1-42.
- 곽영환(2005, 2월). 평준화지역 학교의 학생성적이 더 높아. 한겨레.
<http://www.hani.co.kr/section-005006001/2005/02/005006001200502201916038.html>.
- 교육인적자원부(2003). 한국교육. 서울: 저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간단한 교육통계. 서울: 저자.
- 교육인적자원부·통계청 보도자료(2007. 6월). 사교육비실태조사 실시 계획.
- 김경식(2003). 학업성적에 대한 과외학습의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13(3).
- 김광옥·김대일·서이종·이창용(2003). 입시제도의변화(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한국사회과학. 25 (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187.
- 김기석(2004). 실증적 분석 연구를 통하여 평준화 효과의 진실을 밝히자- 최근 교육정책 논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KEDI Position Paper. 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석 외(2004). 최근 평준화 논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사회대 입학생 분석의 재검토. 서울대학교사범대학 한국교육사과 연구노트 제 23호.
- 김기석 외(2005).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PR 2005-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동석(1998). “새대학입학제도”에 내포된 정책 주장의 논리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김양분 외(2000). 과외교습 실태 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발전방안. 교육학 연구. 41(1). 한국교육학회. 253-275.
- 김영철 외(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 김영화(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 사교육 문제의 재조명.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 외(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 구상(III)-학부모와 자녀교육편-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 93-2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윤태 외(1979). 고교평준화 정책의 평가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회(1991). 한국인의 교육열, 그 허와 실. 대학교육, 50: 71-77.
- 김태중 외(2003).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서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현진·최상근(2004). 고교평준화 정책 . *한국교육*, 31.
- 김현철(1997). 학부모운동. *신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287-308.
- 백일우(1999). 입시과외 수요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4). 117-136.
- 상경아(2005). 고등학생의 과외 효과에 관한 연구-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성기선(200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3).
- 송상훈 외(2006, 6월). [출산율1.08인구재앙막자] 취학 자녀 2명인 가정 소득 22%가 사교육비.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viewaid.asp?aid=2734452>.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TIMSS-R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분석. *한국교육*, 30(2): 261-283.
- 오육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나(1991). *교육정상화와 과외실태 조사보고서*. 서울YWCA.
- 이정규(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서울: 집문당.
- 이종각·김의수(2003). "교육열"개념의 비교와 재정의. *교육학연구*, 41(3), 191-214.
- 이주호 외(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과외 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19(3).
- 이주호·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서울: 한국경제학회. 37-56.
- 전성일·강인원·김은영(2003). 공교육 만족도를 결정하는 사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0집. 서울: 한국경영교육학회. 187-206.
-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163-179.
- 최상근·김양분·유한구·김현진·이희숙(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CR2003-19.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이재분·이혜영(2003). 한국학부모의 교육열 분석연구. 연구보고 RR2003-6.2003. 한국교육개발원.
- Baker, D., Akiba, M., LeTendre, G., & Wiseman, A. (2001).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3: 1-17.
- Baker, D., & LeTendre, G. (2005). *National Difference, Global similarities: World Culture and the Future of Schooling*. Palo Alto: Stanford.
- Boyd, W.L.(1999). Paradoxes of Educational Policy and Productivity. *Educational Policy*, 13: 227-250.
- Bray, M. (1999). *The Shadow Education System: Private Tuto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lanners*. Paris: IIEP-UNESCO.

- Bray, M. (2003). Adverse Effects of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Dimensions, implications and government responses. Pari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UNESCO.
- Joo, C.A. (2000).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J. C. Weidman & N. Park (Eds.), *Higher Education in Korea* (pp. 89-107). New York: Falmer Press.
- Kim, K.S.(1991). A Statist Political Economy and High Demand for Education in South Korea.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7(19).
- Lee, C.J. 2005. Perspective: Korean Education Fever and Private Tutoring,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2(1).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99-108.
- Lee, K. (2003). The Best of Intention: Meritocratic Selection to Higher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hadow Education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ee, S. (2006). Prestige-oriented Views of College Entrance and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eTendre, G. L.(1994). Distribution Table and Private Tests: The Failure of Middle School Reform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form*, 3: 126-136.
- Meyer, J. W.(1979). The Effect of Education as an Institu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1). 55-77.
- Seth, M. J.(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 Stevenson, D. L. and David P. Baker. 1992. Shadow Education and Allocation in Formal Schooling: Transition to University in Japa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63-57.
- Tsukada, M. (1991). *Yobiko Life: A Study of the Legitimation Proces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dman, J. C., & Park, N. (2000). *Higher education in Korea: Tradition and adaptation*. New York: Falmer Press.
- Won, J.(2001). A Study on Social and Economic Effect of Private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This study reexamines Lee's (2006) study, using an analysis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o explore how structurally key family, student, and cultural background factors influence parent expenditure on shadow education, focusing on the impact of sociopsychological factor. Of key importance, this study highlights how prestige orientation shapes students' uses of shadow education with affected by the other factors such as family and student backgrounds.

Data were drawn from the 2004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school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measure the impact of prestige orientation on parent expenditure while controlling for other salient variables such as parent income and education, students' prior grades, school quality, and school urbanicity.

Findings show that prestige orientation than any other modeled variable has more significant and substantive effect on the use of shadow education, affected by family background. Though policies have targeted the problems (e.g., increasing school quality and prohibiting that practi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oots of shadow education lie much deeper within South Korean 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refore, indicates the difficulty faced by South Korean policy makers attempting to mitigate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It recommends that South Korean policy makers approach shadow education matter from the more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instead of focusing on the short-term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demand for shadow education. More viable policies may be those aimed at offering competitive public alternatives to private tutoring. The study may also offer insight about how to meet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s to formal schooling caused by the growth of shadow education over the world.